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시험기준 강화 업계 반발

함수율,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 7개 항목 기준 충족해야
건설현장 규정, 기준 자체가 과다하다는 게 업계 지적
개정안 규정대로라면 현장에서 한 번만 쓰고 폐기

김종일 기자

도내 가설업계가 최근 정부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시험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22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시험기준이 포함됐다.

함수율,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 7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건설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과다하다는 게 업계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합판에 함유된 물기를 시험하는 함수율 항목이다.

개정안의 함수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쓰이는 유로폼 대부분을 한 번만 쓰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한번이라도 쓰이면 물기를 머금게 돼 함수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KS(한국산업표준) 기준 중 수요건도 유로폼 재활용을 어렵게 하긴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푸집용 합판이 목재 재질의 유로폼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으로 인해 자체 품귀로 인한 공기차질 등이 우려된다.

여기에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시험기준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밀폐된 실내용 내장재가 아니라 야외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해체하는 거푸집용 합판까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설업계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목재 거푸집 구매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다른 재질 거푸집의 대처도 힘들게 된다고 개정안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재질의 거푸집 단가가 높은데다 이로 인해 유로폼 가격이 오르면 임대 단가도 올라 원도급 건설사 부담도 가중,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도내 가설업계 관계자는 “유로폼을 한 번 구매하면 통상적으로 수차례씩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일회용품으로 사용하고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며 “매번 현장에 납품할때마다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설업계는 물론 건설업계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부도, 폐업이 속출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옥죄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제브리핑

“정작이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의 농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포털사이트 공고절차를 통해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해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 위탁자는 8년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농지처분시 양도소득 종과세 10% 절감(종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 적용)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의 농지처분허가 면제되어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세~74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의 경영이익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가능하다. /박상래 기자

LX-국토연구원, 협력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사업 성공추진 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토연구원과 손잡고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

LX는 22일 국토연구원과 ‘국가공간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표준작업 활성화, 중복투자 방지 등 공간정보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력이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만큼 국가공간정보사업의 ‘표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LX는 앞으로도 공간정보 국가표준화정책 지원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과 ‘표준지원기관’으로 지정돼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서울시 및 광역시도의 공간정보 사업에 대해 표준 적용 활성화와 위한 지원활동도 수행해오고 있다. /박상래 기자

국내 최초 100% 워터클리닝 공법 송천동 에코시티에 ‘청춘세탁’ 오픈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에 24시간 맡기고 찾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세탁소’가 들어섰다.

주식회사 청세는 전주 에코시티에 국내 최초로 100% 워터클리닝 공법을 적용한 세탁소 ‘청춘세탁’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워터클리닝은 용매를 기름으로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과 달리 오로지 물과 직접 제조한 특수 세제만 사용해 세탁하는 공법이다.

드라이클리닝 이상의 품질 가능과 동시에 가장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청춘세탁은 일반 세탁소와 달리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 365일 24시간 열려 있다.

일반 생활 빨래부터 특수 세탁(드라이 의류), 운동화 세탁까지 언제든지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매장 내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탁존은 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체계적인 공정과 세탁 기술로 직접 세탁하는 공간이다.

청춘세탁박스는 365일 24시간 세탁물을 맡기고 찾기가 가능한 무인세탁함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인존은 셀프로 자유롭게 이용한 동전 빨래방으로, 대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기에 대표는 “세탁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세탁물의 퀄리티와 고객과의 신뢰다”며 “청춘세탁은 체계적인 세탁 공정과 워터클리닝 공법으로 세탁공장에 위탁하지 않고 모든 세탁물을 직접 매장에서 세탁한다. 세탁물 검사 과정만 4번을 거치며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춘세탁은 오픈 이벤트로 오는 30일까지 찾아온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20%를 적립금으로 제공한다. /김종일 기자

코로나19 지원금 도착 빙자한 스미싱 증가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문자 130여건
불분명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삭제해야

사기범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등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을 탈취한다.

사기범들이 전하로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하며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약성품 설치를 요구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감염위험 때문에 전화로 약식조사를 진행할테니 그에 필요한 원격앱 처리를 요구한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22일 최근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스텝문자 관련 상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신고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문자는 130여건 접수됐다.

스미싱(smishing)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이다.

스미싱 사례는 최근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시작하고 정부도 지원금 지

급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수법으로서 관련 상품권 등이 도착했다며 자연스럽게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즉시 삭제해야한다.

또 일부 지자체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이러한 상품권 결제확인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도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은 결제시마다 결제 완료 확인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 수신시 즉시 삭제해야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지도 및 실제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월 중순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 스텝문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실 지원장은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도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을 숙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JB금융지주, 베트남 증권사 인수

JB금융 계열사 7개사로 늘어

JB금융지주가 베트남 모건스탠리 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 인수에 대해 양국 금융당국의 최종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JB금융은 지난 100%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베트남 증권사를 광주은행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JB금융 계열사는 7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인수 가격은 지급기준일 환율을 적용해 199억원이다.

MSGS 자기자본 189억원 대비 1.05배다.

JB금융은 새로 인수한 베트남 증권사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현지 부동산·인프

라 개발 관련 금융주선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지기업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회사채 발행 주선뿐 아니라 인수합병(M&A) 주선 업무도 함께할 예정이다.

JB금융은 이번 인수로 동반자 금융밴드를 구축하게 됐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전북은행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CBank)을 인수했다. 같은 해 JB우리카페탈을 통해 미얀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

JB금융 관계자는 “은행·캐피탈에 이어 증권사까지 인수하며 해외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신남방지역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규 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 반찬 3종세트 100세트 기탁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달라며 반찬3종 100세트를 임실군에 기탁했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임실농협지부(이희운 지부장, 전북농가주부모임이 협력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반찬을 직접 만들어 반찬 나눔 세트를 기부했다.

농협중앙회 이희운 지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지만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이웃에게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며 “지역사회와 농업인 실의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반찬나눔인 ‘찬찬찬’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지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나가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길수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뮈데 봉사단원 보육원 방역활동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뮈데 봉사단원 10여 명은 22일 전주시 덕진구에 ‘호성보육원’을 방문해 지역사회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면역이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방역 활동을 펼쳤다. /김종일 기자

LX, ‘공가랑’ 대국민 서비스로 출시

빈집 거래 활성화 목적 ‘공가랑’ 7월1일 정식 오픈 앞뒤
LX는 구축 및 운영, 자치단체는 관리로 협업 모델 주목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공가랑’을 고도화해 대국민 서비스로 출시한다.

LX는 빈집 거래 시스템인‘LX빈집플랫폼 - 공가랑’을 24일부터 전주시와 손잡고 시범운영 후 오는 7월 1일 정식오픈 한다고 22일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LX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인력망을 토대로 전량량과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랑’을 구축·운영했다.

더 나아가 공사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축대장, 토지대장, 생활 SOC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대국민 토털서비스로 탈바꿈시켰다.

이에 따라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치단체 혹은 ‘공가랑’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직접 빈집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빈집 소유주가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빈집 정보 등록이 가능하다.

최규성 사장 직무대행은“이번 사례는 공사가 ‘공가랑’을 구축·관리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는 협업 모델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며“공사는 앞으로도 빈집 문제 해결은 물론 국민 맞춤형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X는 ‘공가랑’ 공동사용을 위해 서울, 대전, 세종, 전북 등 8곳 광역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업무협약과 상관없이 사용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도 시스템 제공이 가능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농협, 나눔축산운동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북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조합장 김창수)은 22일 완주군 화산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쉼크대 및 장판교체, 임구계단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완주군 화산면 독거노인 주택의 낡은 쉼크대와 장판을 걷어내고 최신 쉼크대와 장판으로 교체 및 임구계단보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전북농협 김영일 부분부장, 전주완주시군지부 홍종기 지부장, 김양우 축산사업단장, 여기현 화산면장 등이 참석해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 실천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어려운 이웃이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산부문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와 후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 이



모씨는집이 낡고 더러웠었는데 쉼크대와 장판을 바꿔주고 임구계단 보수를 하니 새집이 된 것 같다”며 나눔축산운동에 고마움을 전했다.

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증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상래 기자

소중한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사회부 063) 230-5850 정취부 063) 230-5821 경제부 063) 230-5840

새전북신문
The New Jeonbuk Shinmun